

##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과 취업력

문유경\*

본 논문은 여성 자영업자의 이론적,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가 결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자영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함께 이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우리 나라 여성 자영업의 규모의 변화추세를 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자영업 부문은 1960년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자영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의 절대 비율이 경제발전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율에 비해 높다. 둘째 1980년대 이후 자영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여성 자영업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남성 자영업자의 증가가 더욱 가파르다. 셋째 고용주의 여성비율은 19.3%로 매우 낮지만 점진적으로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35.6%로 여성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예상대로 자영업의 비율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여성 자영업주의 인구학적 특성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고연령의 저학력의 특성을 보인다. 자영업주 내에서 이질성을 보면 고용주는 자영업자보다 평균연령이 낮고 고학력이어서 자영업자 중 성과가 좋은 집단이 고용주로 진입하기보다는 두 집단의 진입경로가 처음부터 다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영업자의 학력은 다른 종사상의 지위와 비교할 때 일용직근로자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여성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이 임금근로자로 진입하지 못한 생산성이 낮은 집단일 확률이 높다.

혼인상의 특징을 보면 다른 집단보다 기혼비율이 높은 가운데 사별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가장 높은 유배우율을 보이는 무급가족종사자와 가장 대조되는 점이다. 반면 일용근로자 역시 사별의 비율이 자영업자 다음으로 높아 이 두 집단의 경우 사별 이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처지에서 진입이 용이한 취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취업력을 분석하면 결혼, 출산 등의 생애단계를 거칠 때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하는 것은 물론 종사상의 지위 역시 달라진다. 결혼과 첫 출산을 전후해서 상용고의 비율은 크게 하락하는 반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크게 상승한다. 이와 같이 30대 이후, 결혼과 출산 이후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자영업자로의 진입비율이 높은 이유가 상용직에의 진입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나 여성 개인의 지능력 등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한 자영업을 선택한 비자발적 요인인지 혹은 자영업자의 높은 수익성과 일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선호하여 선택한 자발적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핵심단어:** 자영업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근로조건, 생애단계, 취업력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I. 서론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자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경제 활동상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서 창업을 실업난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정책적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자영업에 대한 관심의 또 다른 이유는 국가의 경제적 발전단계와 자영업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경제발전단계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자영업의 비율이 높고 또한 1990년 이후 그 규모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이론적인 관심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자영업의 선택과 이동, 성장과 사멸의 과정, 취업 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다. 어떤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노동시장에서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자영업을 선택하는지, 이들의 자영업 지속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자영업자들의 근로 조건 혹은 소득이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봄으로써 지금까지 취업자에 대한 연구 시 임금 근로자에게 주로 초점이 맞추었기 때문에 결핍되었던 잔여 부분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들에서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을 파악하기는 매우 힘들다.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을 무시한 채 남녀를 분리하지 않고 같이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여성 자영업자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연구현황을 보면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을 분석한 연구와 (성지미, 2000)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괄하는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특성과 생애경력에 대한 연구(정진성, 장지연, 2001)가 최근에 발표되어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외국의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첫째 여성이 자영업을 선택할 때 남성과는 달리

가족의 상황을 고려한다는 점이다. 남성은 자영업 결정요인으로 연령, 학력, 경력년수 등의 시장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반면, 여성은 이러한 변수 외에 결혼상태, 자녀수, 가구수입, 남편의 취업상황 등 가족과 관련된 변수가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여성근로자에 비해 여성 자영업자들의 소득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가족의 특성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셋째 자영업의 결정요인이 남성과 다기 때문에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과 직종 역시 남성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부부가 공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 국가마다 다른 기준에 의해 아내는 자영업자로 혹은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관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여성 자영업자의 이론적,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가 결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자영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함께 이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첫째 여성 자영업자의 전체적인 규모와 시계열적인 추이를 남성과 혹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로는 여성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 인구학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과 직종, 노동조건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여성 자영업자들의 취업력에 대한 분석이다. 이들이 생애주기별로, 세대간에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자영업자로 진입한 시점과 지속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여성 자영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려 한다.

#### <자료 및 용어>

본 논문에서 여성 자영업자의 규모와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와 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들의 특성과 취업력 분석은 한국여성개발원의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보고서와 원자료가 이용되었다. 자영업자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유급직원 없이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거나 조금 범위를 넓혀 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영업주는 자영자와 고

용주를 합한 개념으로, 자영자는 유급직원 없이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로, 자영부문은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 II. 여성 자영업자의 규모와 시계열적 추이

지난 30년간의 우리 나라 비농가 부문의 자영업 규모를 보면 1963년의 약80만명에서 2001년에 4백9십만명으로 6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다. 비율면에서 1963년에 29.6%에서 점차 감소하였다가 1990년의 22.4%를 최저점으로 반전하여 그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여 2001년에는 25.8%를 보인다. 즉 도시지역 취업자 4명 중 1명인 셈이다.

<표 1> 연도별 전체 취업자(비농가)의 자영업주 비율

단위: 천명, %

	전체 취업자(비농가)	임금근로자	자영업주	
			자영업주	자영업주 비율
1963	2691	1686	796	29.6%
1970	4580	2933	1236	27.0%
1980	8575	5660	2273	26.5%
1990	14629	10418	3273	22.4%
2000	18583	12693	4715	25.4%
2001	18959	12895	4892	25.8%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이러한 우리 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경제수준이 비슷한 OECD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높은 편에 속한다. 경제 발전 수준과 자영업주의 비중간의 관계를 연구에 의하면 둘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하여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영업주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주의 비율이 회귀선보다 상당히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발전단계에서 기대되는 수준보다 자영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류재우, 최호영 1999).

자영부문을 여성으로 국한하여 보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선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자영부문은 2001년 현재 여성은 31.7%, 남성은 31.0%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좀 더 세분하여 보면 여성 취업

자 중 여성 고용주는 3.8%, 자영자는 15.0%, 무급가족종사자는 12.9%로 남자에 비해 고용주비율이 적은 대신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온다. 이는 자영부문 종사비율이 남녀 비슷한 수준이지만 내부적으로 자영부문에서의 여성 취업자의 경제적 상황이 남성보다 열악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임금근로자 부분에서도 유사하여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여성은 22.3%임에 비해 남성은 41.8%로 여성의 고용불안정이 훨씬 높아, 자영부문과 임금근로자 부문 모두 여성의 고용환경이 취약함을 보여준다. 자영부문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자영자는 지속적으로, 고용주는 불규칙한 가운데 미미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임시고와 일용고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임금근로자 부문과는 자못 다른 양상이 추후 예측된다.

<표 2> 연도별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의 지위별 분포

단위 : %

취업자(여자)	1985	1990	1995	2000	20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영업주	21.3	16.9	18.1	18.5	18.8
고용주	3.0	3.3	3.9	3.5	3.8
자영자	18.3	13.6	14.2	15.0	15.0
무급가족종사자	16.4	13.8	14.0	13.5	12.9
임금근로자	62.3	69.2	67.9	68.0	68.3
상용	31.9	26.8	29.3	21.0	22.3
임시	19.5	28.1	28.2	32.1	32.2
일용	10.9	14.3	10.4	14.9	14.2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다음의 표는 지난 10년간 자영부문의 세부집단별 취업자수에 대한 연도별 증가율이다. 이 표에 의하면 고용주집단의 증가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 지난 10여년간 평균 증가율이 여성은 4.3%인 반면 남성은 2.8%로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자영자 집단의 증가율은 남성이 높아 여성인 3.6%인 반면 남성은 4.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이 사실은 지난 10여년간 자영부문의 증가가 주로 남성자영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을 보여 준다.

&lt;표 3&gt; 연도별 남성 취업자의 종사상의 지위별 분포

취업자	단위 : %				
	1985	1990	1995	2000	20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영업주	26.9	25.0	27.1	29.1	29.8
고용주	9.6	10.4	11.3	10.6	10.9
자영자	17.3	14.5	15.8	18.5	18.8
무급가족종사자	1.2	1.1	0.9	1.1	1.2
임금근로자	71.8	73.9	72.0	69.7	69.0
상용	52.2	48.3	49.0	41.5	41.8
임시	10.7	16.3	14.1	18.3	18.0
일용	8.9	9.3	8.9	9.9	9.1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여성 고용주의 증가는 그 비율은 높지만 점유율이 적어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특기할 만한 사실은 1998년 IMF 경제위기를 전후한 자영업주의 비율변화이다. 1998년에 여성 고용주는 21.9%, 남성은 11.5%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반면 남성 자영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또한 1999년의 남성 무급가족종사자는 무려 20.0%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녀 모두 고용주의 경우 폐업, 부도 등으로 감소한 반면, 남성 자영자는 기업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퇴출을 당한 임금근로자들이 대거 자영자로 전환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2000년과 2001년의 경우 고용주의 증가율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자영부문의 규모는 개인의 선택과 함께 경기에 강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의 경우 OECD국가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1980년대 이후 자영업부문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 현상은 우리 나라와 달리 여성의 자영업 증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1970년대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1.2%인 반면 자영업주는 0.2%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인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증가율은 역전되어 자영업주는 2.2%, 전체 취업자는 1.4%로 자영업주가 더욱 빠르게 증가한다.

<표 4> 자영업부의 성별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 %

	여 자			남 자		
	고용주	자영주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주	자영주	무급가족종사자
1991	6.4	6.9	5.1	11.5	5.1	6.3
1992	5.1	4.9	-2.0	6.6	5.1	2.8
1993	0.1	-1.0	14.1	-0.4	10.1	0.5
1994	13.6	3.2	1.5	5.7	2.2	-8.5
1995	10.0	8.8	1.0	4.4	5.6	-6.1
1996	8.4	4.8	1.9	5.1	2.1	5.1
1997	5.6	5.7	-0.6	1.0	5.8	-3.9
1998	-21.9	-6.3	2.9	-11.5	4.7	2.8
1999	2.7	7.3	-2.6	-4.1	4.3	20.0
2000	5.4	3.0	3.3	7.8	2.2	5.4
2001	11.6	3.4	-1.3	4.1	3.2	10.4
연평균 증가율	4.3	3.7	2.1	2.8	4.6	3.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이러한 자영업자의 증가는 주로 여성 자영업자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이는 성별 자영업자 증가율을 비교하면 여성이 각각 3.4%, 1.0%로 남성의 2.3%, 0.5%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자영업내 여성비율이 높아져 1970년대의 26.4%에 비해 1990년대는 29.2%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자영업의 증가는 경제성장이 상대적으로 빠른 서비스부문에 나타나는데 서비스부문의 여성자영업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OECD, p.157; Aronson, pp. 16-17)

<표 5> OECD회원국의 자영업과 민간부문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

단위 : %

	1973-1979	1979-1990	1990-1998
자영업	0.2	2.2(2.3)	1.7
민간부문취업자	1.2	1.4	1.0

주: 농업부문과 무급가족종사자 제외.

통계별로 해당국가의 차이가 있음, ()안은 제외국가가 다른 경우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p. 159.

&lt;표 6&gt; OECD회원국의 성별 자영업 증가율과 비중

단위 : %

	1973-1979		1979-1990		1990-1998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성별 자영업증가율	0.7	0.6	3.4	2.3	1.0	0.5
자영업내 성별 비중	26.4	73.6	28.1	71.9	29.2	70.8

주: 농업부문과 무급가족종사자 제외.

통계별로 해당국가의 차이가 있음, ()안은 제외국가가 다른 경우

출처: p. 161.

우리 나라의 여성 자영업주의 비율은 OECD회원국에 비해 약간 높은 편에 속한다. 앞선 종사상의 지위별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용주의 여성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5년의 16.0%에서 2001년에는 19.3%로 증가하였으나 자영자는 38.8%에서 35.6%로 절대 규모면에서는 증가하였지만 여성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와 자영자를 합한 자영업주의 여성비율은 1985년에 비해서는 감소한 반면 2000년에 비해 약간 증가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lt;표 7&gt; 자영부문의 연도별 여성비율

단위 : %

	자영업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주	자영자	
1985	32.3	16.0	38.8	88.9
1990	30.8	17.3	38.0	88.8
1995	30.2	18.4	36.7	91.0
2000	30.2	18.3	35.6	89.0
2001	30.5	19.3	35.6	87.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지금까지의 분석을 요약하면 첫째 우리나라의 자영업 부문은 1960년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자영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의 절대 비율이 경제발전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율에 비해 높다. 둘째 1980년대 이후 자영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여성 자영업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남성 자영업자의 증가가 더욱 가파르다. 셋째 자영업주의 여성비율은 OECD선진국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다. 고용주의 여성비율은 19.3%로 매우 낮지만 점진적으로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35.6%로 여성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예상대로 자영업의 비율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 Ⅲ. 여성 자영업주의 특성

이 장에서는 여성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 인구학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들의 종사업종과 직종 노동조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여성 자영업주가 임금근로자에 진입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불안정, 저소득을 특징으로 하는 잔여 집단인지 혹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입한 집단인지에 대한 분석에 비중을 두려 한다.

다음의 표는 2001년 현재 종사상의 지위별 평균 연령이다. 우선 여성 자영업주를 고용주와 자영업자로 세분하여 보면 고용주의 평균 연령은 43.1세 자영업자는 45.7세로 오히려 고용주의 연령이 높다. 이는 고용주가 자영업에서 출발하여 일정한 성공을 거친 뒤 고용주가 되기보다는 임금근로자나 무직상태에서 곧바로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남성 고용주의 평균연령에 비하면 여성 고용주는 조금 낮은 반면 자영업자는 여성의 평균연령이 더욱 높아 여성 자영업자 집단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음을 보여 준다.

&lt;표 8&gt; 성별 종사상의 지위별 평균 연령(비농가)(2001년)

단위 : %				
	연령	가구주여부	유배우율	교육년수
여자	38.7	24.4	64.2	10.9
고용주	43.1	39.8	76.5	11.9
자영자	45.7	38.4	70.7	9.5
무급가족종사자	42.5	0.2	94.8	10.4
상용	31.9	21.3	47.6	12.9
임시	37.0	27.1	57.2	11.0
일용	41.5	26.2	68.3	9.2
남자	40.2	82.1	76.2	12.4
고용주	43.6	95.9	93.6	13.0
자영자	44.9	91.6	87.9	11.4
무급가족종사자	38.6	17.5	50.2	11.8
상용	38.7	85.2	78.4	13.4
임시	36.4	66.5	56.6	11.8
일용	41.4	71.2	63.8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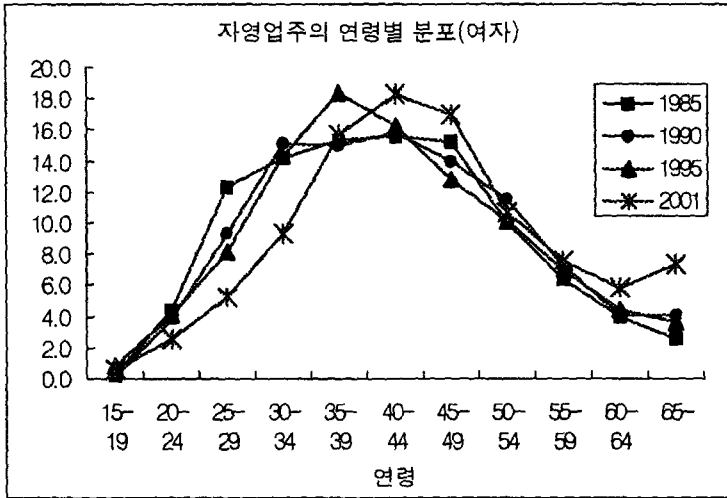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 상용직이 31.9세로 가장 큰 격차를 보여주는 반면 일용직은 41.5세로 연령상 자영자 집단에 가장 근접한 연령집단임을 보여 준다. 무급가족종사자도 42.5세로 일용직 집단과 유사한 수준이다. 남성 취업자의 평균연령이 임시직이 가장 낮고,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과 다른 양상을 보여 노동시장내의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연령별 구조가 성별로 다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여성 자영업주 집단의 연령별 분포에 대한 시기별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여성 자영업자의 연령별 분포는 우리 나라 여성 취업자의 전형적인 연령별 분포는 M형과는 달리 종형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결혼, 출산에 의한 단절현상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자영업주의 연령과 혼인상태를 고려할 때 출산을 마친 후 자영업을 시작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결혼과 출산에 의한 부담이 조직 내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 보다 적기 때문에 즉 근로시간과 양의 자율적인 통제가 가능하여 가사노동과의 병행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시기별 변화를 보면 평균연령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그림 1] 여성 자영업주의 연령별 분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첫째는 저연령층의 비율이 낮아지고 반면 40대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자영업주의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른 하나는 최근으로 올수록 연령분포의 폭이 좁아지면서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 연령편차가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985년의 경우 30대와 40대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반면 2001년은 30대 후반에 대폭 증가하여 40대 전반에 정점을 보이다가 50대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전체 여성 취업자와 비교하여 여성 자영업주의 특성중의 하나는 기혼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2001년 현재 전체 취업자는 미혼이 25.1%, 기혼이 74.9%로 1:3의 비율인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미혼의 비율이 6.1%로 낮은 반면 임금근로자는 33.9%로 혼인상태에 따라 종사상의 지위의 분포가 크게 달라진다. 자영업주 세부 집단별 차이를 보면 고용주 집단의 유배우율이 자영업자보다 높은 반면 자영업자는 사별상태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아 가장 고연령층 집단임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별 이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처지가 되었을 때 자영업의 진입이 다른 종류의 취업보다 용이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lt;표 9&gt; 종사상의 지위별 혼인상태

단위 : % (명)

(2001년)	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계	100.0	(7858777)	25.1	64.2	7.0	3.6
<b>비임금근로자</b>	100.0	(2492834)	6.1	81.2	9.0	3.6
자영업주	100.0	(1476400)	8.1	71.9	14.2	5.8
고용주	100.0	(296339)	6.1	76.5	10.3	7.1
자영자	100.0	(1180060)	8.6	70.7	15.2	5.5
무급가족종사자	100.0	(1016435)	3.3	94.8	1.5	0.4
<b>임금근로자</b>	100.0	(5365942)	33.9	56.3	6.1	3.6
상용	100.0	(1753211)	48.7	47.6	2.4	1.2
입시	100.0	(2527521)	31.2	57.2	6.6	5.0
일용	100.0	(1085210)	16.3	68.3	10.9	4.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는 자영자 다음으로 일용직 근로자 중 사별비율이 높은 사실에서도 추측이 가능하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예상대로 유배우율이 94.8%로 가장 높아 여자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은 남편의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

여성 자영업주의 학력은 남성에 비해 혹은 다른 여성취업자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전체 여성취업자의 평균 교육년수는 10.9년에 비교할 때 고용주는 평균 이상인 반면 자영자는 평균이하의 수준이다. 고용주의 학력은 11.9년으로 상용근로자와 거의 유사한 반면 자영자는 9.5년으로 일용근로자 다음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고용주와 자영자의 학력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부표 참조) 학력별 분포를 보면 고용주는 고졸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중졸이하, 대졸이상의 순서인 반면 자영자는 86%가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의 순서로 낮아지는 가운데 고졸이하가 86%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 자영업주와 비교하면 여성 자영업주의 학력수준이 낮으며, 특히 자영자의 학력수준의 차이가 1.9년으로 고용주의 1.1년보다 더욱 크다. 이는 여성 고용주와 자영자의 학력수준의 차이가 남성간의 차이보다 더욱 큼을 보여 주는 것으로 여성 자영자의 학력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준다.

<표 10> 성별 종사상의 지위별 학력별 분포와 평균 교육년수

	평균년수	계	취업자수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	대졸이상
2001년 여성	10.9						
고용주	11.9	100.0	296339	24.5	49.6	6.0	20.0
자영자	9.5	100.0	1180060	49.9	36.1	3.5	10.5
무급가족종사자	10.4	100.0	1016436	42.4	48.3	4.1	5.1
2001년 남성	12.4						
고용주	13.0	100.0	1235242	13.7	48.1	6.9	31.3
자영자	11.4	100.0	2131767	29.4	54.3	4.7	11.6
1985년 여성							
고용주	10.2	100.0	128095	51.0	33.6	2.7	12.7
자영자	7.0	100.0	770382	80.0	16.0	0.5	3.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자영자의 학력분포는 중졸이하가 가장 많지만 대졸이상이 10.5%의 수준임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는 고졸이 48.3%로 가장 많은 반면 대졸이상은 5.1%에 불과해 자영자의 학력이 이질적인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학력은 보다 균질적임을 알 수 있다. 1985년과 비교하면 자영자의 학력수준이 2.5년 상승하여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졸이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고졸이상 집단은 증가세를 보여준다.

여성 자영업주의 노동시간을 보면 임금근로자에 비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고용주는 59.5시간, 자영자는 50.7시간으로 여성 전체 취업자의 평균 근로시간인 48.7시간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여성 고용주는 54시간 이상이 68.5%로 3명 중 2명꼴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자영자는 평균 근로시간이 상용직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보다 높지만 시간분포를 보면 35시간 이하의 비율과 54시간 이상의 비율이 자영자가 높고, 반면 36-53시간의 비율은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보다 낮다.

이는 자영자의 노동시간이 임금근로자보다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 고용주는 56.2시간, 자영자는 55.2시간으로 역시 장시간 노동이지만 남성 전체 취업자의 52.9시간에 비해 그리 길지 않다. 또한 고용주와 자영자와의 시간의 차이가 여성만큼 크지 않으며, 35시간 미만 자영자와 54시간 이상 자영자의 비율이 여성보다 적다.

&lt;표 11&gt; 종사상의 지위별 노동시간

단위 : % (시간)

	평균노동시간	계	0-17시간	18-35시간	36-53시간	54-71시간	72시간이상
여자( 2001년 )							
전체	(48.7)	100.0	8.1	8.6	46.9	29.4	7.1
고용주	(59.5)	100.0	2.8	3.3	25.4	46.3	22.2
자영자	(50.7)	100.0	10.1	9.5	29.5	36.7	14.2
무급가족종사자	(44.1)	100.0	19.7	7.9	29.9	31.2	11.3
상용직	(47.7)	100.0	2.7	2.2	69.9	23.4	1.8
임시직	(48.7)	100.0	4.0	7.9	51.2	31.7	5.3
일용직	(40.1)	100.0	11.8	21.9	44.2	19.2	3.0
남자( 2001년 )							
전체	(52.9)	100.0	3.0	4.0	45.1	38.2	9.6
고용주	(56.2)	100.0	1.8	2.3	37.5	45.4	13.0
자영자	(55.2)	100.0	4.2	5.0	32.7	43.0	15.1
무급가족종사자	(36.3)	100.0	25.5	14.5	32.4	23.0	4.6
여자( 1985년 )							
전체	(57.6)	100.0	1.2	5.0	34.3	43.0	16.5
고용주	(68.8)	100.0	1.6	2.7	15.0	36.1	44.5
자영자	(61.5)	100.0	1.3	7.1	25.9	37.9	27.8
무급가족종사자	(59.6)	100.0	0.1	7.7	29.6	41.2	21.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 자영업주가 고용주와 자영자의 근로조건차이가 크며, 각 집단간의 시간편차 역시 남자보다 큰 것으로 남성보다 이질적인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자영업을 선택할 경우 수익성을 주로 고려하는 남성과 달리 가사와의 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시간의 융통성이 있고, 진입이 쉬우며, 비용 또는 자본이 적게 드는 업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Hundley, 2000) 자영업주들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분포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 위의 견해를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 여성 자영업주의 36.0%가 도소매업으로 가장 높고,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음식숙박업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 세 업종을 합하면 85.4%로 10명 중 8-9명의 자영업주가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여성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제조업의 비중이 특히 낮으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특히 높다. 그러나 1985년에 여성 자영업주의 49.7%가 도소매업에 집중되어 있

던 것과 비교하면 도소매업의 집중도가 낮아졌으며, 대신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또한 미미하지만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임대사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져 향후 이 부문에 여성 자영업주의 진출이 예상된다. 미국과 서유럽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자영업의 성장은 여성 자영업자들이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대거 진입한 것을 큰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성 자영업주의 비중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업종별 변화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남성 자영업주는 도소매업의 33.3%를 제외하고 나머지 산업에의 종사비율은 비교적 고른 편이다. 여성 자영업주와 비교하면 제조업, 건설업, 운수통신업의 비중이 높고, 반면 음식숙박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비중이 낮다. 즉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여성은 음식숙박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남성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통신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남녀 자영업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2> 성별 산업별 분포(비농업)

단위 : % (천 명)

	여 성				남 성			
	1985		2001		1985		2001	
	전체취업자	자영업주	전체취업자	자영업주	전체취업자	자영업주	전체취업자	자영업주
계	(4212) 100.0	(898) 100.0	(7858) 100.0	(1476) 100.0	(7000) 100.0	(1884) 100.0	(11309) 100.0	(3367) 100.0
광업	0.1	0.0	0.0	0.0	2.1	0.2	0.2	0.1
제조업	32.1	9.5	19.2	6.8	30.7	16.6	23.8	13.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1	0.0	0.2	0.0	0.5	0.0	0.4	0.0
건설업	1.5	0.1	1.7	0.4	12.0	5.0	12.8	10.1
도소매업	26.6	49.7	23.2	36.0	19.0	46.4	18.1	33.3
음식숙박업	14.8	25.1	17.0	23.8	4.2	9.0	5.4	9.1
운수통신업	1.5	0.0	1.9	0.5	9.1	6.2	10.4	12.3
금융보험업	3.3	0.1	5.1	1.7	2.3	0.3	2.9	1.0
부동산임대사업	1.3	0.5	6.0	3.2	3.0	5.2	9.2	7.2
서비스업	18.6	14.9	25.7	27.6	17.1	11.0	16.9	13.3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 자영업주의 직업을 보면 서비스종사자 38.1%, 판매종사자 33.8%로 앞의 산업별 분포와 긴밀한 관련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전문가와 준전문가의 비율도 15.1%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 자영업주가 단순히 서비스, 판매직에만 몰려 있지는 않다. 자영업주와 비교할 때 무급가족종사자는 사무종사자와 판매종사자, 기능직의 비중이 높으며 서비스종사자의 비중이 낮다. 남성자영업주는 의회직 및 고위임직원의 비중이 8.4%로 여성 자영업주보다 직업적 위세가 매우 높은 직종의 비율이 높으며, 서비스종사자와 판매종사자의 비중이 낮고, 반면 기능직 및 장치기계조립직의 비중이 높다. 이와 같이 남녀 자영업주는 매우 다른 직업적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표 13>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성별 직업별 분포 (2001년)

	단위 : % (명)		
	여성		남성
	자영업주 (1476398)	무급종사자 (1016434)	자영업주 (3367012)
계	100.0	100.0	100.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4	0.0	8.4
전문가	4.3	0.9	4.4
기술공 및 준전문가	10.8	1.9	10.7
사무종사자	1.2	14.3	1.3
서비스종사자	38.1	26.5	11.9
판매종사자	33.8	39.1	26.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1	10.0	16.7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2	3.3	17.1
단순노무 종사자	3.1	3.9	2.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영업에서 예상되는 높은 수입은 자영업 선택의 주요 동기이다. Hundley는 남성은 주로 고용주의 준비단계로서 자영업을 선택하지만 여성은 경우는 가사와의 병행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여성의 가사



노동, 결혼, 가족규모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근로자보다 자영업부문에서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Hundley, 2000) 본원의 취업실태자료를 이용하여 종사상의 지위별 수입분포를 보면 우선 고용주가 월 202만원으로 가장 높고 자영자 126만원,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의 수준이다. 그러나 고용주와 자영자의 근로시간이 임금근로자보다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시간당 수입을 계산하면 여전히 고용주가 가장 높지만 자영자와 상용근로자는 그 순위가 뒤바뀌어 상용근로자가 더 높게 나온다.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의 지위선택에 있어 가구 총수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가구총수입에서 여성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였다. <표 14>의 평균 기여율은 개별 여성취업자의 수입이 가구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평균값을 취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여성 고용주의 수입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에의 기여율이 가장 낮은 반면 자영자의 기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자영자의 기여율이 높은 이유는 첫째 여성 자영자의 가구주 비율이 다른 취업자 집단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여성 취업자 전체의 가구주 비율인 14.6%임에 비해 자영자는 37.3%로 두 배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에 따라 가구총수입은 적지만 여성 자영자의 기여율이 높은 가구가 자영자 집단에서 많이 나타난다. 가구 총수입과 기여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음의 상관관계( $r=-.534$ ,  $sig=.000$ )를 보여 주는데 이는 가구총수입이 낮을수록 즉 가난할수록 여성의 기여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14> 종사상의 지위별 월수입비교

단위: 천원, 원, 천원, %

	월수입	시간당수입	가구총수입	평균 기여율
고용주 (4)	201.7	8559.4	1063.8	31.9
자영자 (204)	126.0	5405.9	245.4	60.5
무급가족종사자 (189)			225.4	
상용고 (712)	108.3	5532.3	259.8	51.1
임시/일용고 (293)	62.7	4703.0	180.9	48.7
Total (1402)	100.6	5320.7	238.9	52.0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자영자의 가구 총수입중 기여율이 높은 이유가 가구주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자영자가 가구주일 때와 가구주의 배우자일 때를 비교하여 각각의 수입과 총수입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자영자가 가구주일 때 월수입과 시간당수입이 모두 높지만 가구 총수입은 자영자가 가구주의 배우자일 때 즉 남편과 같이 사는 부인일 경우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 자영자의 경우 남편의 유무가 개인의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가구총수입에는 큰 영향을 미쳐 여성이 속한 가구의 생활정도가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가구주인 여성자영자는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으며 여성 자영자의 정책수립시 정책의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표 15> 자영자의 가구주와의 관계별 월수입

단위 : 만원(원)

가구주와의관계	월수입	시간당수입	가구총수입	가구 수입중 비율
가구주 (76)	128.0	(5161.6)	160.6	85.7
가구주배우자 (125)	125.1	(5565.5)	295.6	45.6
그외가족 (3)	116.7	(4944.9)	300.0	38.7
total (204)	126.0	(5405.9)	245.4	60.5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 IV. 여성 자영자의 취업력

여성의 결혼, 출산 등의 생애단계는 여성의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성들이 어느 생애단계에서 혹은 어느 상태에서 자영업에 진입하게 되는지, 자영업을 시작한 이후 지속기간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에 대한 분석함으

로써 여성 자영업자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여성개발원의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 자영업주의 생애단계에서의 진입 및 지속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동 조사에서는 회고법을 이용하여 여성의 전 생애를 조사하고 있다. 즉 15세 이후 현재까지의 생애단계와 취업상태의 변화를 매년 조사함으로써 패널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와 유사한 성격의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본 장에서의 주요 분석대상은 취업력 설문지에 응답한 30세 이상 64세 이하의 시부에 거주하는 여성 중 한 번 이상의 취업경험을 가진 여성이다. 30세 미만인 여성은 취학, 결혼, 출산 등의 사건이 진행중인 여성이 많아 취업력 분석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많아 제외하였으며, 조사 결과 고용주는 사례수가 너무 적어(4명) 분석대상에서 역시 제외하였다.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군부여성은 제외하였으나, 현재 시부에 거주하면서 과거에 농업부문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농업부문 종사기간만을 제외할 수 없어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유형은 현재나이 50세 이상의 여성 중 일부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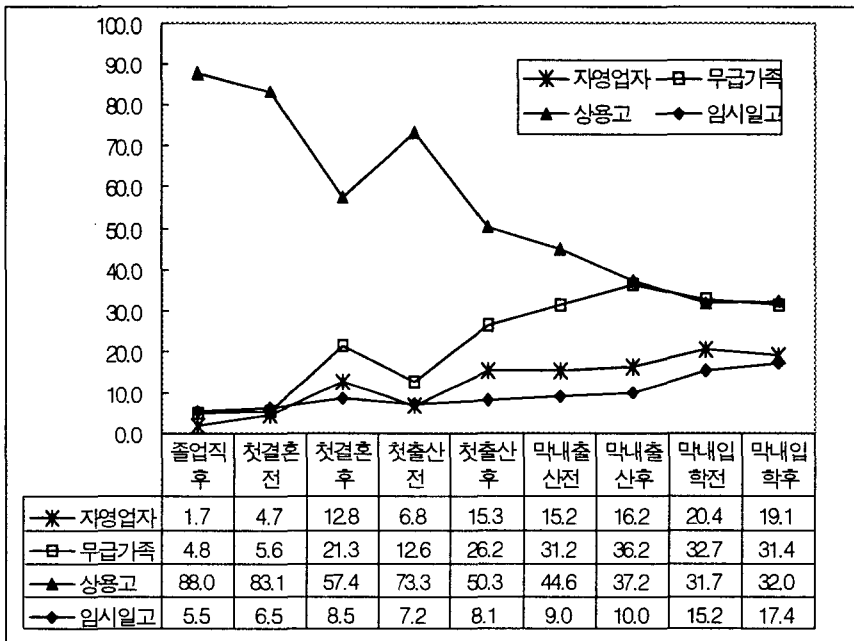
먼저 여성의 생애에 걸친 유업률을 세대별로 보면 연령계층별 유업률 곡선이 최근 세대로 올수록 전반적으로 상향 이동하고 있다. 또한 세대별 여성 피고용률은 전반적으로 최근 세대로 올수록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급감하고 있다. 고용주나 자영자, 임시 및 일용고로 처음 직장을 갖는 여성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동시에 상용고의 신분으로 취업한 여성비율이 최근 세대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다.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pp.225-227) 그러나 1998년의 경제위기 이후 여성상용고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임시, 일용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최초 노동시장 진입시 초적이 상용고가 될 가능성이 더욱 적어지고 있어 이들 세대가 분석대상이 되는 시점에서 앞에서 나타난 세대효과가 여전히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아래의 그림은 결혼, 출산 등의 생애단계를 전후하여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의 지위가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up>1)</sup> 졸업직후 전체 여성 취업자

1) 이 그림은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애단계별 유업률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의 90% 가까이 상용직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자영자는 1.7%로 지극히 적다. 그러나 결혼과 첫출산을 전후해서 종사상의 지위분포에 큰 변화를 보인다. 결혼 전후를 보면 상용고의 비율이 83.1%에서 57.4%로 하락하는 반면 자영자는 4.7%에서 12.8%로, 무급가족종사자는 5.6%에서 21.3%로 상승한다. 이는 결혼이란 생애사건이 여성의 종사상의 지위를 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첫 출산 역시 동일한 유형의 변화를 보여 출산 전에 높게 나타나던 상용고비율이 출산후에 50.3%로 감소하며 반면 자영자와 무급가족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한다. 이러한 변화는 그 정도는 작지만 막내 자녀 출산을 전후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육아의 부담이경감이 예상되는 생애단계로서 막내자녀 초등학교 입학전후를 비교하면 아주 미미하기는 하지만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조금 감소하는 반면 상용고와 임시일용고는 약간 증가하고 있다.2)

[그림 2] 생애단계별 종사상의 지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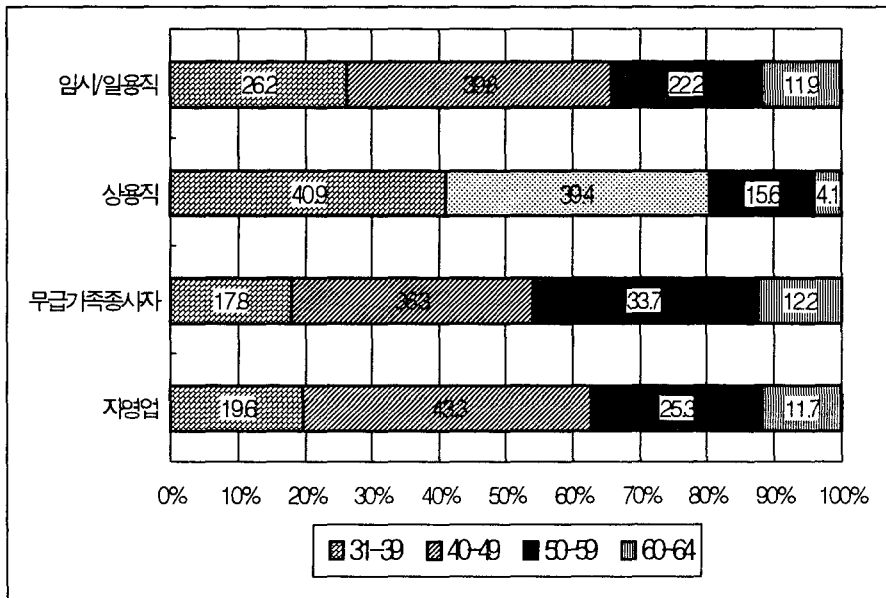
출처: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p. 198.

2) 첫 출산 전과 첫 결혼 후는 시기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연속적인 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림 3]는 종사상의 지위별로 경험자의 현재 나이 분포이다.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 사람의 현재 나이분포를 보면 40대가 43.3%로 가장 많고 30대가 25.3%, 50대가 19.6%의 순으로 40대가 자영업 경험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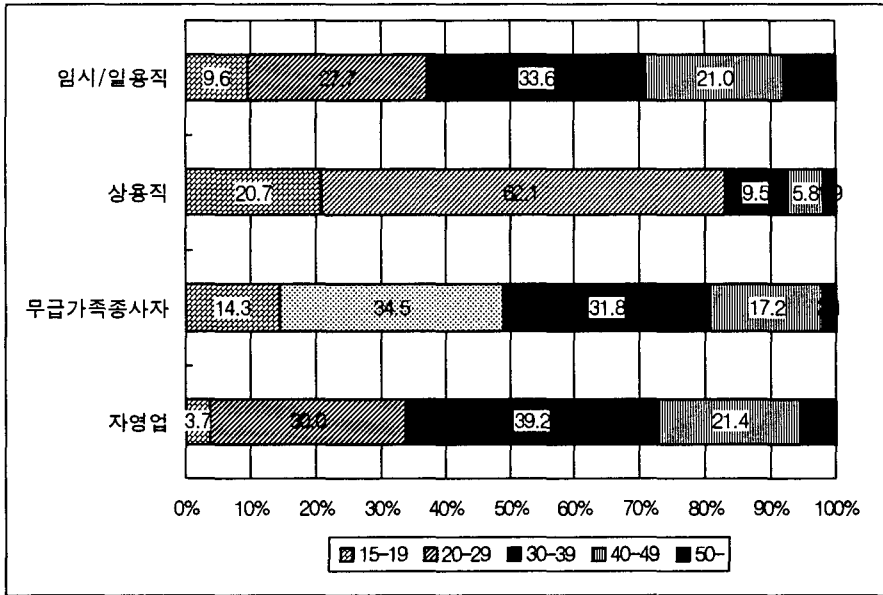
무급가족종사자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여 40대, 50대 30대의 순서이나 50대의 비율이 자영업보다 높아 무급가족종사자들의 현재 연령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상용직의 경험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이 종사상의 지위경험별 현재 나이의 분포를 보면 앞의 세대별 분석과 비슷하게 젊은 사람의 상용직비율이 높다. 결론적으로 상용직 경험자의 현재 평균 연령이 가장 낮으며, 그 다음으로 임시/일용직,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순서로 전반적인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종사상의 지위별 경험자의 현재 나이 분포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그림 4] 첫 종사상의 지위별 시작 연령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이러한 경향은 언제 그 일을 시작했는지 즉 시작나와 종사상의 지위를 연결하여 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상용직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10대 후반의 비율이 20.7%로 가장 많으며 20대가 62.1%로 가장 높다. 반면 30대 이상의 나이에 상용직을 시작한 비율은 20%가 안되게 나타나 현실적으로 30대 이상의 여성이 새롭게 상용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적음을 보여 준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동일한 임금근로자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상용직보다는 자영자나 무급가족종사자 집단과 유사한 분포를 보여 준다. 이는 여성의 취업시 선택하는 종사상의 지위는 연령에 크게 제한을 받으며, 그 결과 임시/일용직의 특성이 상용직보다는 비임금근로자와 더욱 유사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연령과 동시에 결혼유무 역시 종사상의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예상된다. 해당되는 취업을 언제 시작했는지를 결혼전후로 나누어 분석하면 종사상의 지위와 결혼여부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결혼

후에 자영자를 시작한 사람은 전체 자영자 경험자 중 84.0%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무급가족종사자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 또한 임금근로자의 경우도 혼인상태별로 대조를 이루어 상용직을 경험한 여성 중 79%가 결혼전에 상용직을 시작했으며, 임시/일용직은 결혼후에 종사한 비율이 74.9%로 오히려 비임금근로자집단에 가깝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횡단적으로 분석한 제 3장의 [그림 1]에서 여성 취업의 특징으로 간주되는 결혼과 출산을 전후한 경력단절이 자영업집단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성 자영자가 자영업의 특성인 자율성과 유연성에 의해 결혼과 출산후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고 잔류하기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대부분이 결혼이후에 시작하였기 때문으로 연령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결혼이후에 취업을 원하는 기혼여성들이 상용직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상용직 외의 다른 종사상의 지위에 있는 집단들은 상용직보다 근로조건이나 위세가 높지 못한 한계적 일자리일 확률이 높음을 말해준다.

<표 16> 최초의 종사상의 지위별 결혼상태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직	임시/일용직
계	100.0 (362)	100.0 (369)	100.0 (1404)	100.0 (390)
결혼후종사	84.0	79.9	20.9	74.9
결혼전종사	16.0	20.1	79.1	25.1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이와 같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상용직을 원하지만 자격이 부족하거나 노동시장의 차별 등에 의하여 진입하지 못한 여성들이 이윤이 적고 불안정한 한계적 일자리를 메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근로자로서 자신의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소득을 극대화하거나 자율성을 추구하는 자발적 자영자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표 17>는 자영업에 진입하기 전

의 노동력상태를 분류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취업자 내부에서 종사상의 지위를 바꾸는 비율이 매우 적은 반면 대부분 비취업에서 취업상태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자영자 역시 이러한 경향을 보여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비율은 12.1%로 낮은 반면 80%가까이는 무직에서 자영업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영자 내부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고능력군과 저능력군으로 이분할 경우 고능력군은 인적자본이 많은 고능력자로서 큰 폭의 소득향상을 기대하는 자발적 이직자로 충원되는 반면 저능력군은 미취업상태에서 곧바로 진입하거나 상용직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자들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금재호·조준모, 2000) 이 가정에 근거한다면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는 자발성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상용직에서의 이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상태에서의 자영업으로의 진입은 저능력자군일 확률이 높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다른 종사상의 지위 집단 역시 무직에서 이전한 비율이 가장 높아, 우리 나라 여성 취업자들이 취업한 상태에서 다른 종사상의 지위로 바꿀 가능성은 매우 적음을 보여 준다. 특히 상용직은 무직상태에서 진입한 비율이 가장 높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종사상의 집단에 속해 있다가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지 혹은 상용직을 회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는 밝히기가 어렵다. 다만 여기서는 상용직에서 다른 집단으로의 진입비율이 자영자가 12.1%로 가장 높고, 무급가족종사자 8.3%, 임시/일용직 8.2%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시작연령의 분포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여성취업시 종사상의 지위에 대한 선택은 상용직과 다른 종사상의 지위집단으로 크게 대별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자영업에 진출한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분포를 횡단적으로 본 제3장의 <표 12>에 의하면 2001년을 1985년의 비교에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존의 자영자들이 보다 수익성이 높은 업종으로 전환을 했을 가능성과 새로 자영업에 진입하는 집단이 기존 자영업 집단과 다른 산업을 선택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표 17> 최초의 종사상의 지위별 이전의 노동력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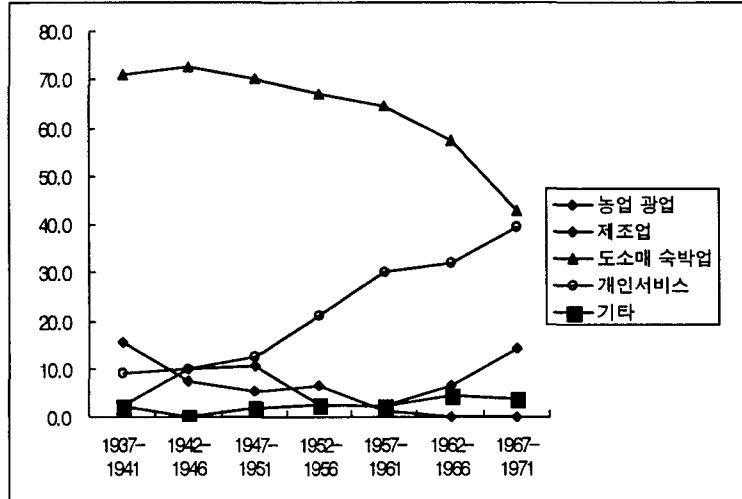
현재종사직 과거종사직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직	임시/일용직
계	100.0 (381)	100.0 (348)	100.0 (1463)	100.0 (401)
자영자	0.0	2.9	0.6	2.0
무급가족종사자	4.5	0.0	0.9	3.2
상용직	12.1	8.3	0.0	8.2
임시/일용직	3.7	0.9	1.0	0.0
무직자	79.8	87.9	97.5	86.5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취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세대별 산업별 분포를 본 결과에 의하면 영향력의 정도는 측정을 하지 못하였지만 일정 정도 세대별 효과가 종산 산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세대별로 자영업을 시작했을 당시에 선택한 산업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 자영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 음식숙박업을 보면 1937-41년생 세대는 71.1%가 동 업종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비율은 최근 세대로 올수록 낮아져 가장 최근 세대인 1967-71년생 세대는 42.9%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8.9%에서 최근 세대로 오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1967-71년생 세대는 39.3%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세대별로 종사하고 있는 산업의 분포가 차이를 보이고, 그러한 차이가 횡단분석에서 보여지는 산업별 분포의 차이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의 변화에 세대별 효과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세대별 첫 자영업의 직업분포 역시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직종을 4개 집단으로 나누어 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서비스직이 39.7%, 판매직인 38.9%로 가장 높고 행정/전문/준전문직의 비율이 12.5%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5] 세대별 자영업 산업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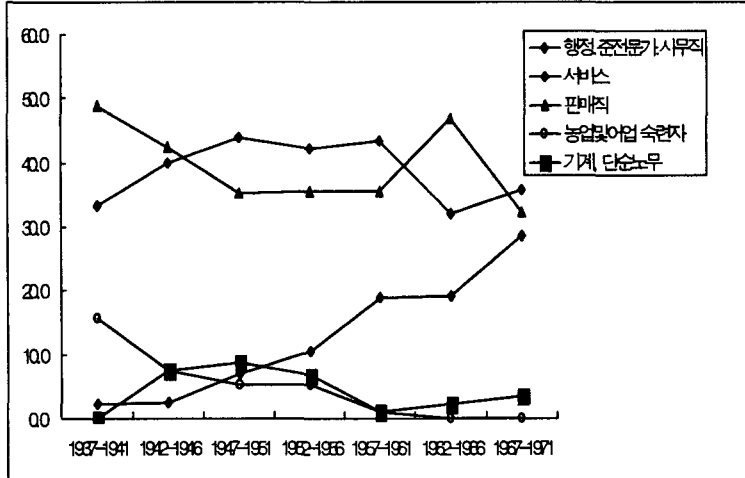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그러나 이 3개의 직종군에서 세대별로 일정한 경향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첫째 행정직/전문직/준전문직 집단의 경우 최근 세대로 올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여 특히 가장 젊은 세대인 1967-71년생 세대의 경우 28.6%로 급상승하고 있다. 둘째 판매직은 1962-1966년생 세대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가장 고연령 세대에 비해 약 16%포인트가 감소하였다. 반면 서비스직은 조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중간 세대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세대별 직종의 변화는 산업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횡단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하여 세대효과가 작용하고있음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향후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에 세대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자영업의 지속기간은 자영업자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의 지속기간이 길어질 경우 노동의 질이 향상되고 자금이 안정되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류재우·최호영 2000)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 나라 남성 자영업주는 상당히 오랜기간 자영업을 지속하여, 자영업주의 생존기간은 대략 3-4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류재우·최호영 2000)

[그림 6] 세대별 자영업 직종분포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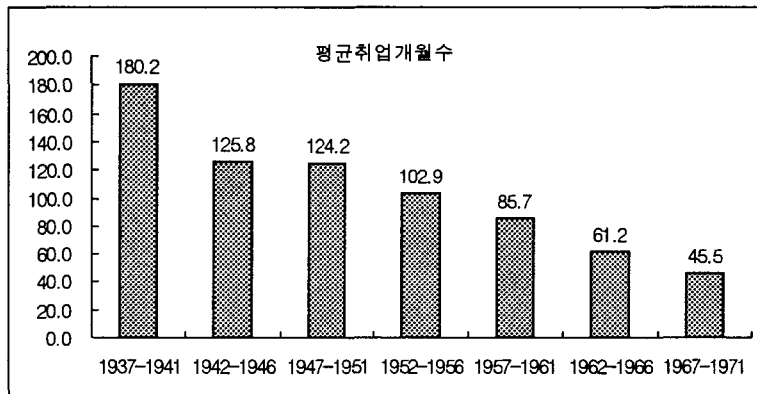
또한 한번 자영업을 시작한 뒤 5개월 이후까지도 계속적으로 자영업에 잔류하고 있을 확률은 1992년 이후의 경우 92-98%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1998년의 경제위기 전까지는 자영업자의 지속기간이 길어져 노동의 질과 취업안정성이 높아져 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여성 취업력의 특징 상 취업/비취업간의 이동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 자영업자의 지속기간은 남성에 비해 짧을 것을 예상이 되나 자료의 한계상 남녀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영업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첫 자영업에 대한 지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전체 383명이 일생에 걸쳐 자영업을 한 기간은 평균 109개월로 나타난다. 이중 2회의 자영업을 경험한 사람(즉 자영업상태에서 비경활이나 임금근로자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이 26명, 3회가 2명으로 나머지 355명은 자영업을 1회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자영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직업, 산업을 바꿀 경우 연속적인 것으로 보았다) 2회 이상의 자영업경험자들의 지속기간을 각 횟수별로 나누어 재계산 결과 평균 104개월로 약간 감소한다. 이와 같이 지속기간이 길게 나타나는 것은 비경활이나 임금근로자로서의 노동력 이동률이 그리 높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예상외로 종사상의 지위

변화가 적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또한 평균 104개월의 지속기간은 앞의 남성 자영업자의 생존기간에 비해 상당히 긴 것이다.<sup>3)</sup> 그러나 이 지속기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즉 지속기간이 긴 것이 여성 자영자에게 반드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에 집중되어 있는 행정직/전문직/준전문직의 고학력 자영업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들은 자발적인 선택이라기 보다는 한계상황에서의 비자발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의 월수입이 100만원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지속기간의 증가에 따른 소득의 안정이나 노동의 질의 향상이 기대되지 않는다. 둘째 분석의 문제로서 종사상의 지위를 바꾸지 않은 채 일의 내용을 바꾼 경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지속적인 일로 간주하여 한 건수로 취급하였는데, 별도의 건수로 취급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의 문제가 있다.

지속기간을 세대별로 보면 연령효과로 오랜 세대일수록 긴 취업기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세대별 차이는 일정하지 않아 1937-41년생에 비해 그 다음 세대인 1942-46년생의 취업개월수는 55개월이 감소하는 반면 1947-51년생과의 취업개월수는 1개월만 감소하고 있어 세대효과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17> 세대별 자영업 지속기간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3) 물론 자료와 분석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무리이다.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학력별 자영업 지속기간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저학력일수록 지속기간이 길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결과는 학력과 세대간의 강한 상관관계로 인하여 즉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기 때문에 보여지는 결과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세대를 통제하고 학력별 지속기간의 차이를 본 결과 1937-1961년생 집단은 학력별로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으나 최근세대 즉 1962-1971년생 집단에서는 학력별로 뚜렷한 지속기간의 차이를 보여, 중졸은 38개월, 고졸 58개월, 대졸 60개월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지속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을 보인다.

<표 18> 학력별 자영업 지속기간

단위: 개월수

	1937-1951	1952-1961	1962-1971	계
중졸	145.0	108.2	37.8	129.2
고졸	160.5	88.9	57.5	94.5
대졸	113.5	108.7	59.8	83.9
계	148.2	98.2	56.9	108.7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 V. 결론

우리 나라 여성 자영업의 규모의 변화추세를 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자영업 부문은 1960년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자영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의 절대 비율이 경제발전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율에 비해 높다. 둘째 1980년대 이후 자영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여성 자영업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남성 자영업자의 증가가 더욱 가파르다. 셋째 자영업주의 여성비율은 OECD선진국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다. 고용주의 여성비율은 19.3%로 매우 낮지만 점진적으로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35.6%로 여성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예상대로 자영업의 비율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여성 자영업주의 인구학적 특성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고연령의 저학력의 특성을 보인다. 자영업주 내에서 이질성을 보면 고용주는 자영자보다 평균연령이 낮고 고학력이어서 자영자 중 성과가 좋은 집단이 고용주로 진입하기 보다는 두 집단의 진입경로가 처음부터 다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영자의 학력은 다른 종사상의 지위와 비교할 때 일용직근로자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여성 자영자들의 대부분이 임금근로자로 진입하지 못한 생산성이 낮은 집단일 확률이 높다. 그러나 학력의 편차가 매우 커서 자영자들이 매우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혼인상의 특징을 보면 다른 집단보다 기혼비율이 높은 가운데 사별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가장 높은 유배우율을 보이는 무급가족종사자와 가장 대조되는 점이다. 반면 일용근로자 역시 사별의 비율이 자영자 다음으로 높아 이 두집단의 경우 사별 이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처지에서 진입이 용이한 취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사별을 했거나 혹은 이혼등으로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자영자는 남편이 있는 자영자에 비해 월수입은 조금 높은 반면 가구총수입은 절반을 겨우 넘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매우 높다.

여성의 취업력을 분석하면 결혼, 출산 등의 생애단계를 거칠때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하는 것은 물론 종사상의 지위 역시 달라진다. 결혼과 첫출산을 전후해서 상용고의 비율은 크게 하락하는 반면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크게 상승한다. 첫 종사상의 지위별 시작연령 역시 상용직은 20대 이전에 대부분 시작한 반면 나머지 집단들은 그 진입연령이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취업력 상 여성취업자는 상용직과 나머지 집단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다. 종사상의 지위별 이전의 노동력 상태 역시 상용직과 나머지 집단으로 크게 대별되어 상용직은 97%이상이 무직자에서 이전한 반면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및 임시/일용근로자들은 상용직에서 이전한 비율이 8~12%의 높은 비율을 보여 상용직에서 다른 지위로의 이전이 용이한 반면 그 역의 이전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30대 이후, 결혼과 출산 이후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매

우 낮은 반면 자영업자로의 진입비율이 높은 이유가 상용직에의 진입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나 여성 개인의 저능력 등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한 자영업을 선택한 비자발적 요인인지 혹은 자영업자의 높은 수익성과 일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선호하여 선택한 자발적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연령, 학력 등 인구학적 특성 및 취업력 분석 결과 여성의 취업구조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별되기 보다는 상용직과 나머지 집단으로 구별할 때 훨씬 특성이 잘 파악될 수 있다.

저학력 고연령으로 특징되는 자영업자 집단의 특성이 점차 변하고 있음이 취업력 분석에서 드러난다. 취업력 분석결과 세대별 효과가 나타나는데, 최근 세대로 올수록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에의 종사비율이 높아지며 직종 역시 전문직/준전문직의 비율이 높아져 자영업자 내부의 이질성을 가져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학력별 지속기간의 차이 역시 최근세대에서만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 내부에서 학력에 따른 자영업의 운영결과가 더욱 달라질 전망이다.

참고문헌

---

- 김재호·조준모.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노동경제論集』 제23권 특별호. 2000 : 81-107.
- 김우영. “취업형태의 비교우위와 자영업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노동경제論集』 제23권 특별호. 2000 : 55-77.
- 류재우·최호영. “우리나라의 자영업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論集』 제22권 제1호. 1999 : 109-140.
- “자영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유동” 『노동경제論集』 제23권 제1호. 2000 : 137-165.
- 성지미.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제3회 345-364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경제학회주최.
- 안주엽. “경기변동과 일자리탐색기간: 임금노동과 자영업의 선택”. 『노동경제論集』 제23권 특별호. 2000 : 109-132.
- 정진성, 장지연.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특성과 생애경력.” 『성곡논총』 제32집 하권. 2001: 53-83.
- Aronson, Robert L. Self-Employment: A Labor Market Perspective. Ithaca, New York: ILR Press, 1991.
- Blanchflower, David, and Oswald Andrew J. “What Makes an Entrepreneu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 (January 1998): 26-60.
- Blau, David. “A Time Series Analysis of Self-Employ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 (June 1987) : 445-67.
- Bregger, John E. “Measuring Self-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Monthly



Labor Review 107 (January/February 1996): 3-9.

Evans, David S., and Leighton, Linda. "Some Empirical Aspect of Entrepreneurship." American Economic Review 79 (June 1989): 519-35.

Evans, David S., and Jovanovic, Boyan. "An Estimated Model of Entrepreneurial Choice under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August 1989): 808-27.

Hundley, G. "Male/Female Earnings difference in Self-Employment: The Effects of Marriage, Children and the Household Division of Labor,"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4(1) (Oct 2000): 95-114.

## &lt;부표 1&gt; 연도별 전체 취업자(비농가)의 자영업주 비율

단위 : 명, %

	전체 취업자(비농가)	임금근로자	자영업주	
			자영업주	자영업주 비율
1963	2691	1686	796	29.6%
1965	3109	1871	973	31.3%
1970	4580	2933	1236	27.0%
1975	6181	4026	1651	26.7%
1980	8575	5660	2273	26.5%
1981	8871	5883	2330	26.3%
1982	9579	6113	2640	27.6%
1983	10011	6529	2676	26.7%
1984	10454	7103	2606	24.9%
1985	11165	7577	2799	25.1%
1986	11766	7934	2996	25.5%
1987	12630	8629	3135	24.8%
1988	13216	9087	3238	24.5%
1989	13920	9851	3188	22.9%
1990	14629	10418	3273	22.4%
1991	15357	10867	3504	22.8%
1992	15759	11064	3717	23.6%
1993	16291	11329	3871	23.8%
1994	16959	11857	4014	23.7%
1995	17652	12296	4263	24.2%
1996	18133	12584	4424	24.4%
1997	18479	12749	4616	25.0%
1998	17348	11784	4425	25.5%
1999	17762	12074	4553	25.6%
2000	18583	12693	4715	25.4%
2001	18959	12895	4892	25.8%

<부표 2> 종사상의 지위별 노동시간 (1985, 2001)

단위 : % (시간)

	노동시간						
	평균노동시간	계	0-17시간	18-35시간	36-53시간	54-71시간	72시간이상
여자( 1985년 )							
전체	(57.6)	100.0	1.2	5.0	34.3	43.0	16.5
고용주	(68.8)	100.0	1.6	2.7	15.0	36.1	44.5
자영자	(61.5)	100.0	1.3	7.1	25.9	37.9	27.8
무급가족종사자	(59.6)	100.0	0.1	7.7	29.6	41.2	21.3
상용직	(54.3)	100.0	1.3	1.1	45.6	44.2	7.8
임시직	(60.8)	100.0	0.5	1.9	25.9	54.1	17.6
일용직	(48.5)	100.0	3.2	15.0	42.6	32.8	6.4
남자( 1985년 )							
전체	(59.3)	100.0	1.0	1.9	31.5	48.1	17.4
고용주	(63.7)	100.0	0.9	1.9	20.1	51.0	26.0
자영자	(65.5)	100.0	1.0	2.8	19.5	44.3	32.5
무급가족종사자	(57.4)	100.0	1.6	8.4	28.6	43.2	18.2
상용직	(56.7)	100.0	1.0	0.7	39.9	46.4	12.1
임시직	(61.9)	100.0	0.8	1.7	19.3	59.6	18.5
일용직	(54.5)	100.0	1.9	7.1	33.1	49.2	8.8
여자( 2001년 )							
전체	(48.7)	100.0	8.1	8.6	46.9	29.4	7.1
고용주	(59.5)	100.0	2.8	3.3	25.4	46.3	22.2
자영자	(50.7)	100.0	10.1	9.5	29.5	36.7	14.2
무급가족종사자	(44.1)	100.0	19.7	7.9	29.9	31.2	11.3
상용직	(47.7)	100.0	2.7	2.2	69.9	23.4	1.8
임시직	(48.7)	100.0	4.0	7.9	51.2	31.7	5.3
일용직	(40.1)	100.0	11.8	21.9	44.2	19.2	3.0
남자( 2001년 )							
전체	(52.9)	100.0	3.0	4.0	45.1	38.2	9.6
고용주	(56.2)	100.0	1.8	2.3	37.5	45.4	13.0
자영자	(55.2)	100.0	4.2	5.0	32.7	43.0	15.1
무급가족종사자	(36.3)	100.0	25.5	14.5	32.4	23.0	4.6
상용직	(52.2)	100.0	1.4	1.4	55.3	35.0	6.9
임시직	(54.4)	100.0	2.6	3.6	39.2	42.9	11.7
일용직	(45.0)	100.0	6.3	14.9	46.9	28.5	3.3

&lt;부표 3&gt; 종사상의 지위별 평균 교육년수

	여자	남자
전체	10.9	12.4
고용주	11.9	13.0
자영자	9.5	11.4
무급가족종사자	10.4	11.8
상용	12.9	13.4
임시	11.0	11.8
일용	9.2	10.1

&lt;부표 4&gt; 자영자의 직업, 산업, 학력별 월수입

단위: 만원(원)

직업별	월수입	시간당수입	가구총수입	평균기여율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무원 및 준전문 (23)	189.3	(9438.8)	340.7	64.3
사무직 (3)	93.3	(4565.0)	160.0	77.8
서비스직 (103)	117.6	(4711.0)	230.7	61.0
판매직 (68)	122.5	(5340.5)	242.7	58.9
기능직,노무직,조립직,단순노무직 (7)	91.4	(3375.6)	211.4	48.5
Total (204)	126.0	(5405.9 )	245.4	60.5
산업별				
광업제조업 (7)	96.4	(3927.4)	176.4	63.4
도소매 수리업 (65)	110.3	(4287.5)	216.5	58.6
숙박 음식업 (66)	114.2	(5286.2)	223.4	64.2
운수 통신업 창고업 (1)	250.0	(11627.9)	250.0	100.0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7)	264.3	(10958.8)	464.3	73.8
사회및 개인서비스업 (58)	142.0	(6196.4)	284.6	55.7
Total (204)	126.0	(5405.9 )	245.4	60.5
학력별				
중졸이하 (77)	101.7	(3718.6)	192.5	65.0
고졸 (101)	134.4	(5818.8)	259.0	58.9
전문대졸 (3)	116.7	(9339.2)	333.3	52.7
대졸이상 (23)	172.0	(8728.2)	351.5	53.2
Total (204)	126.0	(5405.9)	245.4	60.5

abstract

---

## **The Characteristics and Work History of Women Self-Employed**

Moon, You Kyoung

This paper is aimed at three points. Firstly the size and trend of women self-employed in Korea are analysed during 30 years. Secon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labor condition like working hour, income and etc. of them are presented. Last, when did they begin or end their own work as their life stages were changed.

**Keywords:** self-employe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labor condition, life stages were changed.